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
	배포일시	2018. 2. 2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고용석, 사무관 유용식, 주무관 박동준 • ☎ (044) 201-3573, 3585, 3583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교량·터널·공동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,457곳 안전대진단

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은“ 점검 내실화”총력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현미)는 오는 **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**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, 터널, 철도, 댐, 항공, 건축,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**3,457개소에 대한 ‘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’**에 나선다.

○ 이에 앞서 2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□ **국토교통부는** 도로반·철도반·수자원반·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**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**으로 **구성**하였으며,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, 철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**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·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**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.

○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, 터널, 댐, 철도, 주택, 건축, 항공시설 등 **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**에 대해 진행된다.

- 안전등급이 **C 등급 이하**인 **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해당되며**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**포항지진 영향권**(진도 4이상) 내 **교량·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**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.

<국토교통 진단대상 시설물 현황>

분야	계	도로	철도	항공	수자원	건축물	특정시설
종류	3,457	교량 터널 사면 등	교량 터널 역사 등	공항 시설	댐 상수도 하천	공동주택 대형건축물	교량,터널 공동주택
개수		2,437	294	15	55	67	589

□ **점검 결과,**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**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**하고,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의 **보수·보강, 사용 제한, 사용 금지**는 물론, 필요시 **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·보강**토록 조치할 예정이다

○ 또한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,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, **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**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**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**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,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**홍보영상을 방영**할 계획이며, 그 외에도 **현수막** 등을 이용한 **대국민 홍보활동**도 같이 진행한다.

□ **금번 국가안전대진단**은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"**점검 내실화**"에 총력을 다한다. **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점검 내실화를 위해** 산하·소속기관장들에게 과거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**안전대진단에 임할 것을 특별지시**했다.

○ 각 **산하·소속기관의 장**이 **직접 점검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**하고, 형식적인 진단이라는 지적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**안전 사각지대와 취약요인을 꼼꼼히 진단**한다.

○ 특히 진단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**화재·방재·대피시설 등의 취약시설***에 대해서는 **추가점검을 실시**하고, 필요시 **진단기간도 충분히 연장하여 점검에 내실화**를 기한다.

* 취약시설) 도로·철도 터널 화재등 방재·피난대피시설, 침수우려 시설물 펌프 시설, 댐 전기시설, 하천수문 및 펌프장 시설, 특수교 피뢰침 적정설치 여부 등

○ 또한 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고, 특히 금번 점검부터는 **"안전점검 실명제"를 도입**하고 감사부서 등을 통한 **확인점검을 실시**하여 점검에 대한 **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**이다.

○ 안전대진단 **점검결과**에 대해서는 **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**하고, 행정안전부와 함께 **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**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 **손병석 제1차관은**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"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**엄중한 시국**인 만큼 **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줄 것"을 당부**했다.

○ 또한, **관계 기관에** "안전대진단이 형식적 진단을 뛰어넘어 안전 사각지대, 안전 취약요인 등을 꼼꼼히 살펴 **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**할 수 있는 **실질적인 진단**이 되도록 할 것"을 **지시**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, **진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**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유용식 사무관(☎ 044-201-35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